

성신 강림대축일

기도서 309면 (B해)

제1독서 : 사도행전 2, 1-11

제2독서 : I고린 12, 3b-7, 12-13

복 음 : 요한 15, 26-27

숲정이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 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요한 15, 26).

강론

세상을 움직이는 성령

엄기봉 신부 / 오룡동 주임

소리

한 젊은이의 죽음

오늘은 성신 강림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예수 부활을 경축하고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신 강림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세상을 움직인 사과 4개」라는 이야기가 생 각납니다. 첫번째 사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 먹은 사과입니다. 두 번째 사과는 회랍신화에 나오는 미의 사과로써 세 여신끼리 싸우는데 비너스에게 주어진 사과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과는 설리의 작품에 나오는 빌헬름텔의 사과입니다. 네번째 사과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 이야기입니다. 위의 세상을 움직인 사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찮은 사물이 세상을 바꿀만한 법칙과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평범한 일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음을 깨우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하느님 영이신 성령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리 보다는 힘이 앞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순리보다는 역리가 그리고 선보다는 악이 판을 치는 세상같이 보입니다. 또 믿음의 세상보다는 불신이, 사랑의 세상보다는 미움이, 또 희망에 찬 세상보다는 절망의 세상을 보고 허탈감을 느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독재정권 아래 제도와 구조와 앞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 지쳐있다가 6.29 선언이후 이땅에 참 민주화, 선한 세상이 곧 오겠다고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부분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져 세상살이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희망찬 결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선한 세상을 기대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최근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의 손길을 느낍니다. 인간의 역사를 뛰어 넘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실의와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두려움이 평화와 용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살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두려움과 실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체험을 통해 악을 보면서도 결국에는 선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치고 고달퍼도 선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해서는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움직이고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고 우리교회를 움직이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희망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소서 성신이여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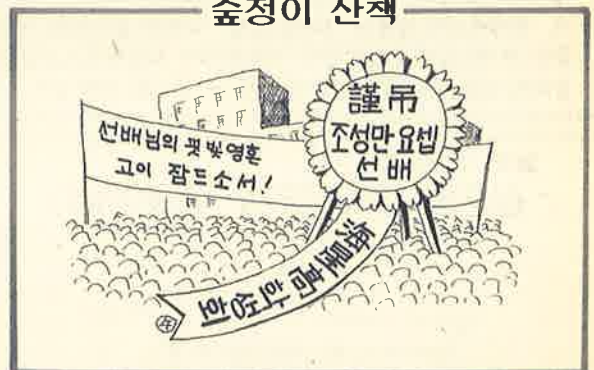
우리는 또다시 한 젊은이가 생명을 불사른 슬픈 소식을 들었다. 먼저 머리숙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당사자인 조 성만군은 「한반도의 통일문제·미국과의 관계·군사정부의 퇴진·올림픽의 민족화해의 장화·진정한 언론자유의 활성화·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회복·민족교육의 활성화 등」을 염원하고 고민하며, 우리에게 문제로 제시하며 할복 투신의 결단을 내렸다.

어찌보면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 말아야 할 몫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지난 5.16 군사 쿠데타이후에 지속되어 왔던 독재정권의 망령이 그 첫째 원흉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참 주인으로 살지 못했던 불행한 어제의 오늘의 역사가 그 실증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의 뼈아픈 각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조 성만군은 요셉이라는 본명으로 세례와 견진을 받은 천주교 신자이다. 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친다. 생명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하느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하며 시작되는 그의 유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떠오르는 아버님, 어머니의 얼굴. 차마 떠날 수 없는 길을 떠나고자 하는 순간에 처박힌 팔레스티나의 목수 아들로 태어난 한 인간이 고행 전에 느낀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라고 끝을 맺는다. 이 대목에서 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숲정이 산책



‘성령의 열매는 사랑 입니다(갈라 5,22)

17여년 전 미국으로부터 들은 ‘성령 운동’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들은 우리 교회의 전통적 분위기를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이러한 급작스런 변화에 비판의 소리도 드높았지만 우리 교회가 능동적이며, 생동적인 교회로 쇄신되는 큰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공부와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새로운 신앙 체험은 ‘하느님과 깊은 전교’와 힘있는 기도, 확신감에 넘치는 믿음, 기쁜 신앙 생활, 성서와의 친밀감 등 살아 있는 신앙을 키워주었습니다. 이른바 ‘수직적 차원’이라 부르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재발견 하므로써 인간은 그분만을 사랑하고 따르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깊이 확신하고 성령의 도움 없는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체험은 자칫 개인주의나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 들게 합니다.

또한 치유의 은사 등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성령의 힘을 빌어 자신의 현실적 욕망을 충족 시키고자 하는 ‘기복신앙’화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1. 정통 신앙교의에 충실하라(1고린 12,1-3),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2. 자신에게 유익한 선물보다는 공동체에 가장 유익한 선물을 구하라.
3. 우리로 하여금 신자에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 뿐임을 명심하라(1974년 5월 11일 교황 바오로6세 연설문 중에서).

즉 체험으로부터 오는 감정의 움직임에 초연하여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이성적 판단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어떤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이나 말로만이 아닌 행동과 진실로써 실천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신 강령 대축일! 그 옛날 성모님과 사도들 머리 위에 내려온 그 성령이 우리 위에도 내리시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기도 합시다. 하느님,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나’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서와 함께

3. 성서저자들의 사고방식

성서가 우리 민족에게 소개된 것은 서구 그리스도교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였다. 그런 까닭에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늘 동양문화와 거리가 먼 작품을 대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성서의 근본사상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서구인들에게보다 비논리적이고 종합적인 동양인들에게 더욱 친근하다. 성서를 탄생시킨 고대근동의 셈족들은 직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느님과 세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의 논리보다 영감을 중요시하는 한편, 자신들의 신앙체험을 구체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의 업적을 통해서 표현했다. 그 사건들과 인물들이 역사에 바탕을 두기는 하나, 때로는 과장되고 때로는 각색되기도 하면서 역사적 실제와 멀리 떨어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아예 하느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한 크게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

성서저자들이 들려주는 구수한 이야기들은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인류를 언제 어디서나 새롭게 교육시키고 있다. 창세기의 창조설화, 성조들의 역사, 히브리족의 에집트 탈출기, 광야에서의 방황과 가나안 점령,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들은 후세인들에게 끊임없이 기억되면서 오늘까지도 그 역동적인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수많은 문학과 미

술가, 음악가들이 성서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자신의 인간성과 신앙의 예술을 승화시키면서 인류 전체의 정신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루터같은 이는 이스라엘의 왕조실록가운데 다윗의 부정사실을 규탄하는 예언자 나단의 “임금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I사무 12,7)는 고발대목을 통해서 참회의 전기를 마련했고, 나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전수받은 그리스도교는 분명 서구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핵심인 성서의 세계와 메시지는 이렇듯 다분히 동양적이다. 그러면 왜 같은 동양인으로서 사고방식이 비슷한 우리가 성서저자들의 목소리를 알아듣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이 간격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서양학문의 방법론이다. 성서의 핵심 내용으로 접근하는 서구인들의 학구적인 노력과, 성서의 내용을 직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우리네 동양인들의 심성이 만만다면 성서연구와 그리스도교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더없이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교회에 일고 있는 성서 붐은 그 성패 여부가 이들의 조화 여하에 달려있지 않나 싶다.

■ 회 소 식 ■

성인병 민간요법 무료상담

일 시 : 1988. 5. 18 부터
 장 소 : 전주 서학동천주교회 내
 임시연락 86-6226
 상담자 : 經筋·庚(뜸) 요법연구회
 전북지회장 조 베드로(정웅)
 교육원장 신 방지거(봉갑)

동양화 매매·고급표구 일체
 각종 작품 주문 제작·성화
 병풍 액자 족자

전 주 화 랑

한 택천(마르첼리노)
 위치 : 도청 옆 대한생명 뒤
 전화 85-2220

유치반·기초반·중고부
 입시부 전문지도

황소영스튜디오

(피아노 전문 학원)

원장 : 황 소영(아나다시아)
 위치 : 이리시 창인동 신광교회 앞
 ☎ 51-0111

교 구 소 식

※ 이누갈다·유요한 동정부부 순교자 현양을 위한 리 무용단 공연(배정혜의 춤 "유리도 시"): 때-1988.5.22(일) 오후 6시. 곳-전북 학생회관. 구입처-각 본당 사무실. 일반-3,000원. 학생-1,000원

1. 혼인법원: 24일(화) 오후 2시 장소-교구청 사무국
2. 혼인강좌: 29일(일) 오전 9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회비-4,000원
3. 성소자 모임: 29일(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중·고·대 일반 남자
4. 제13기 예비자 교리반 개강: 26일(목)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터
5. 지산 자활원 원생 모집 안내: 자격-만18세~30세의 미혼 여성으로 활동 가능한 지체 부자유자(숙식 제공, 기숙사 생활) 제출서류-지원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본당신부, 단체인 기관장 추천서 1통 자세한 문의-부산시 남구 대연4동 1173-259(전화 624-3835) 방 수산나 수녀.
6. 성 바오로 남자 수도회 성소자 모임: 28일(토) 오후 4시 대상-영세한지 3년 이상, 고졸이상 28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자 장소-서울 성 바오로 수도회(02-980-6275, 989-4954)
7. 박성팔 신부님께서 필리핀 E. A. P. I 연수를 마치시고 지난 4일, 귀국하시어 서신동 주임으로 부임하셨습니다.
8. 주소안내: 서신동 천주교회 560-170 전주시 서신동 55-4 전화 4-2214

* 축/영명 성 디디에(23일): 지정환 신부님 축하합니다.

두려움 ————— 세기 성체대회를 앞두고

깨달음(覺)과 믿음(信)

옛부터 동양의 성현들이 깊이 추구해온 인생의 목표는 하늘과 사람의 일치였습니다. 사람이 하늘과 하나됨은 바로 하늘의 덕을 처음으로 깨닫고 본받아 사람들과 어울려 화목하게 살면서 그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늘의 덕이란 생명과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늘의 높은 덕을 깨닫기도 힘들고 그 덕을 삶에서 실행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현들은 어떻게 하늘의 덕을 실현할 수 있을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늘의 생명력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사람 안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지나친 욕망과 감정과 편견 등으로 막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늘을 가리고 그 힘을 눌러버렸습니다. 가린 하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힘을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여러가지 장애를 모두 치우고 맑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선 예로부터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의 움직임을 통찰하고 비우는 공부를 중요시 하였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운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의 힘으로 이웃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과 일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체를 모심으로써 하느님과 일치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생명을 우리와 나누시었고 그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의 힘이 성령이며,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달을 때 성령의 힘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막힘없이 움직일 때 사회의 찢긴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는 자유로와지며, 세상은 잘 살 수 있게 변화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자신을 깨끗이 비워 성령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마음만을 정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삶을 통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움으로써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을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요식이 (772) 김병오



□ 1분 명상

자연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자신을 속이는 자는 언제나 우리들이다.

— 루 소 —

명동피부과의원

건축설계·건축허가
공사감리 대행업의 전문
신원건축사무소

1급 건축사
김철수(요한금연)
전주시 진북동 294-10
☎ 주 3-7780-72-8500
야 3-1449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가톨릭의 언론

1988. 5. 15
창간호 발행
평화신문 전주지사
구독신청문의
☎ (0652) 85-4102

한복
약혼·무용·파티·결혼
고려주단
전광원(마르코)
김삼례(소피아)
전주시 고사동
(신혼예식장 곁쪽)
☎ 6-1902

임야·복지·건물·상가 투자상담은
대창부동산
김행표(클레멘스)
이재우(요셉파나)
사무실 군산 63-8686
야간 → 자택 62-7844

☐삼례·익산지구 본당소식☐

* 고산

사제관 73-4019 주임신부 양경배
수녀원 73-4110 사목회장 고석재

1. 성모의 밤 행사: 31일 오후9시 시, 수필, 편지를 준비바람
 2. 유아세례식: 29일 공식미사후
 3. 장우회: 29일 공식미사후
 4. 금주전례: 독서①이재만 ②박은단 봉헌-김종남부부
차주전례: 독서①김길택 ②이연순 봉헌-고석재부부
- ☐ 지난주봉헌금: 261,920원 ☐ 교무금: 200,000원

* 금마

사제관 53-7187 주임신부 이덕근
사무실 53-6244 사목회장 김상용
수녀원 53-7157

1.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 합니다.
창세기 13,1-18 마태복음 13,1-58
 2. 불우이웃돕기 폐품수집
미사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3. 모 입: 꾸리아-오늘 공식미사후
 4. 성서 40주간에 관심 있으신 분은 5월 31일까지 신부님께 신청 바랍니다.
 5. 중·고학생 배구대회: 22일 화산천주교회
- ☐ 지난주봉헌금: 147,360원 ☐ 교무금: 80,000원

* 삼례

사제관 73-8469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9-2018 사목회장 김을수
수녀원 9-3196

1. 유아세례: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미리 접수 바랍니다.
 2. 사제양성후원 사업 저금통: 사무실에서 수납합니다.
 3. 예비자 교리: 신부님지도반 매목요일 밤9시, 수녀님반 매토요일 밤9시, 주일 오전9시 예비자 인도에 힘을 기울입니다.
 4. 성모의 밤: 30일 밤9시(봉헌하실 초는 수녀님과 상의바람)
 5. 예수성심월: 6월 인류를 사랑하사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정성껏 보답합니다.
 6. 금주전례: 특전 이창로 김윤채
공식 김복동 이인식 제물봉헌 강신일부부
차주전례: 특전 김현래 박판순
공식 박창호 이영순 제물봉헌 고행기부부
- ☐ 지난주봉헌금-436,250원 ☐ 교무금-74,500원

* 여산

사제관 53-5016 주임신부 정천봉
사무실 사목회장 이상영

1. 청년회: 공식미사후
 2. 구역장 모임: 26일 어머니 미사후
 3. 주일학교 소풍: 장소-화산천주교회
 4. 중고생: 성 김안드레아 추모 학생 배구대회(화산성당에서)
 5. 금주전례: 독서①이승복 ②임수광
봉헌-장인숙, 이영림
차주전례: 독서①박춘옥 ②김숙경
봉헌-노중권 부부
- ☐ 지난주봉헌금-155,980원

* 용안

사제관 6-2766 주임신부 정태현
사무실 사목회장 서흥원

1. 농번기 중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이웃을 도와줍시다.
 2.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후 학생미사후
 3. 성모의 밤 행사: 5월 28일 9시
 4. 가정 방문: 회장님과 사목회의 협조로 300세대의 가정방문을 감사히 끝냈습니다.
 5. 승천야외미사에 협조하여 주신 신은, 석동구역에 감사
 6. 감사헌금: 사거리 떡방앗간, 신현경-50,000원
 7. 금주전례: 해설-송형식
독서-김기문, 이영순 봉헌-박석규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영우
독서-정대홍, 오윤자 봉헌-홍윤표 부부
- ☐ 지난주봉헌금-208,690원

* 함열

사제관 6-0165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6-0065 사목회장 김종대
수녀원 6-1539

1.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 입니다.
2. 꾸리아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3. 예수승천 야외미사에 협조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4. 르무용단 전주공연 "유리도시": 22일6시 전주학생회관
*입장권은 사무실에 있음 일반-3,000원 학생-1,000원
5. 금주전례: 해설-김광태 윤영미
독서①김정수 ②최봉옥
차주전례: 해설-박화신
독서①최영순 ②강영순

* 화산

사제관 6-3671 주임신부 김종길
사무실 사목회장 김상규

1. 감사: 예수성심상 기증 김안나씨 5월22일 공식미사후 축성식
2. 성김대건 신부배 학생배구대회: 오늘 11시
3. 성모의 밤: 5월28일(토) 저녁미사후
4. 성모회: 공식미사후 회합실에서
5. 차주전례: 첫미사 전병철 부부
공식미사: 자운경, 권보물

☐ 지난주봉헌금: 133,330원

* 황등

사제관 52-2541 주임신부 김순태
사무실 사목회장 장현순
수녀원 52-7634

1. 축! 영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중·고 배구대회: 화산성당(오늘)
 3. 성모회: 공식미사후
 4. 첫영성체 교리: 5월 22일부터
 5. 승천축일 야외미사: 월성공소 신자분들과 협조하신분들께 감사!
 6. 금주 목요 공소방문: 월성공소
 7. 금주전례: 해설-김용자 독서-김종규 부부 봉헌-이군승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낙천
독서①연규중 ②정은주 봉헌-장영식 부부
- ☐ 지난주봉헌금: 251,830원